

기아차·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법원 판결후 결정”

지역 대기업 대책 고심... 노조 “수용 안하면 투쟁”

삼성전자는 3월부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동계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지역 대기업 사업장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찌감치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한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지만, 노조 소송에 따라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문제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4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모기업인 현대차그룹의 방침대로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한국 GM이나 쌍용차와 달리 현대차는 ‘상여금의 고정성’을 이유로, 다른 업체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근로자

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최소 근무조건이 존재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초기 단계인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특근과 잔업이 많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 직원들은 각종 수당이 상승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대표자들은 오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 공동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08년 처음 제기됐으며 2심이 진행 중이다. 주요 소송 내용은 교대수당과 휴가비 등 기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 여부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는 별도 소송으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갑

을오도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금호타이어의 상황과 차이가 많아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며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말 사원협의회를 거쳐 3월 급여부터 통상임금을 적용했다. 적용내용은 연간 6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것.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 등이 퇴직금과 연동하면 실제 임금이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대인승용차 기본임금 인상률은 1.9% 인상(지난해 5.5%)에서 마무리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정도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환율 하락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상임금과 관련, 노사가 원만한 타협을 통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6.62 (-1.70)

▲ 금리 2.50% (+0.03)

▲ 코스닥 559.67 (-3.47)

▲ 환율 1028.60원(+4.90)

■ 재정·세제·금융 41조 투입... 효과 있을까

부동산 규제완화, 기업소득→가계로 ‘내수활성화’

세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금융 등을 묶은 41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한국 경제에 균형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금융을 통한 지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과도한 현금성 유보 자산에 대해 과세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성장 모델에 분배 측면을 좀 더 가미한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나 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높아지면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가계소득 확대제도도 내놔야 한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 세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가계소득

소비심리 회복 ‘세제지원 3대 패키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 41조원 투입...재정 12조원, 금융·외환 29조원=정부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극적 거시정책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다시 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새 경제팀의 정책목표는 내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을 살리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 보장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9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역·업권별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을 지렛대 삼아 내수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 기업소득→가계소득...세제로 지속성장 유도=기업의 성과를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세제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새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다른 모습이다. 기

중대 3대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을 막고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정책이 성공하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 전문가 “금융 비중 너무 높아”=기준금리 낮춰야=새 경제팀이 과감한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41조원이라는 숫자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41조원 안팎의 이번 대책에서 금융·외환 지원책은 29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금융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처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며 “자금이 실제 대출로 연결되지 미지수고 다른 곳에서 빌려왔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면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공동 인식이 기초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나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프리미엄브랜드 1위

금호고속(대표 김성산)이 24일 ‘201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국 7대 도시 성인남녀 8만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편익성, 애호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등 6가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고속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 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올해 7회째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평가제도다. 체계적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 분야별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선정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디자인 비닐봉투 전달

광주신세계(대표 유신열)는 24일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에서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디자인 비닐 봉투 전달행사를 가졌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 디자인 비닐 봉투 50만장을 제작해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한다.

광주신세계(대표 유신열)는 24일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에서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디자인 비닐 봉투 전달행사를 가졌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 디자인 비닐 봉투 50만장을 제작해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리샘보청기, 좋은상조와 업무협약 체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목받는 기업인 ㈜소리샘보청기(대표 정봉승)가 좋은상조(주)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좋은상조 상품인 소리샘보청기 가맹점 고객에게 소개하고, 좋은상조 모집인은 보청기 고객을 소개해 직원과 회사가 동반성장하는 전략적 제휴다.

소리샘보청기는 최근 아이폰과 보청기가 연동되는 신제품 ‘헬로’를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헬로’는 전화통화 및 음악감상을 무선으로 할 수 있고, 아이폰을 통해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 보청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



좋은상조(대표 정봉승)가 소리샘보청기(대표 정봉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경총, 취업 프로그램 가동 상반기 646명 취업

광주경제자유구역협회(회장 최상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646명의 인원에 대해 취업을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49명보다 43.8% 증가한 숫자다.

상반기 취업현황을 연령대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172명, 30대 38명, 40대 164명, 50대 이상 272명으로 중장년층의 취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남녀 성별로는 남성 394명, 여성 252명으로 전체취업인원 대비 남성취업자가 60.9%를 차지했지만 40대에서는 여성이 62.2%로 남성보다 높아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 활발했다. 직종별로는 ‘제조, 기계 관련 생산기술

직’(46.4%)이 가장 많았으며 ‘경영, 회계 사무관리직’(31.6%),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8.0%), ‘건설, 부동산 관련직’(4.5%), ‘영업·마케팅·유통 종사자’(4.2%) 순이었다.

광주경총은 정부로부터 각종 고용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청년취업 아카데미, 장년 취업 인턴제,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및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하남산업단지 고용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인력난과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8월 중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사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목)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 (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재적격리함.)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교학차 (062)605-1112, 1063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